

한라시론



김장한

전 광저우총영사

쓰레기처리는 이제 인류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의 하나로 부상했다. 인류문명의 발전에 따라 육지와 바다가 쓰레기로 오염돼 인류의 생존조차 위협받게 될 지경에 이르렀다. 아울러 이제 처리비용을 받고도 쓰레기를 수입하는 나라는 없어지고, 쓰레기와 폐기물은 자국 내 처리라는 국제적 규범이 자리매김할 상황이었다.

아름다운 제주도라고 하지만, 숲속과 바다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쓰레기 섬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하면서 쓰레기 문제를 피상적으로 다루어 온 것이 우리의 현실

쓰레기처리문제 처음부터 재검토할 수 있다면?

이다. 쓰레기 문제는 그간 행정부처를 포함해 어디에서나 3D업종의 하나로 취급했을 것이다.

인류존속을 위해 환경보호는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고, 쓰레기처리에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할 시점에 이른 것 같다. 현재 쓰레기처리 문제는 잘못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포함해 시작과 그 과정을 철저히 재검토하여 해결방안을 찾아 낼 수 있으면 좋겠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봉사자들이 쓰레기 줍기를 하려 해도, 수거한 쓰레기의 배출 날짜가 달라 봉사활동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처음부터 현실과 괴리된 수거 및 처리방식은 점점 더 간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쓰레기통을 적정 규모로 비치하고, 들쭉는 쓰레기 발생 원인이 되는 상품 용기와 포장지를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해 수거와 처리가 용이도록 제작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쓰레기 무단배출에 대한 단속보다는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배출 장소 안내문을 여러 곳에 설치해 누구든지 쓰레기를 쉽게 버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재분류에 많은 인원을 고용해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재활용으로 새로운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어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연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지 않고, 현 단계에서 피상적인 개선만 되풀이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그간 과정을 뒤돌아보면 너무나 자명하다. 있어야 할 곳에 쓰레기통이 거

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렇다면 이를 개선해야 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간 업무를 담당해오던 사람들 보다는 각 부처, 각 기관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를 중심으로 새로운 전문기업을 보완해 백년대계를 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엄청난 문제들이 제기 될 수 있겠지만, 과감하게 시작해야만 아름다운 제주도를 복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성과를 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복원하는데 시급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혁신적인 개선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전 제주도민의 의식함양도 선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하나 한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과는 다른,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아름다운 제주도를 다시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사설

재정확대정책보다 빚더미가 우려된다

정부가 주로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확대정책을 씁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입니다. 문제는 재정확대정책으로 많은 재원을 투입하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간단히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때문에 원희룡 제주도정의 재정확대정책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열린 내년 제주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확대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흥명한 의원은 “국가에서는 재정확대정책을 쓸 수 있는 정책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쓸 수 있는 정책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이승아 의원은 “재정확장정책은 1-2년으로 효과가 없다.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며 제주도의

채무를 제기했습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올해 발행한 지방채 1500억원과 내년 지방채 2520억원, 지역개발공채 3500억원,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지급금 1600억원 등 내년에 상환해야 할 빚이 2조원에 이릅니다.

제주도의 채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큰 빚을 지지 않으면 안될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매입비)입니다. 이 의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입비가 8000억원으로 늘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래서 원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3년 후에는 제주도의 채무 규모가 3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례도 제주도 재정이 건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결국 도민이 다 갚아야 할 빚입니다. 때문에 제주도가 ‘가용재원’ 타령 하기에 앞서 채무관리부터 신경써야 합니다.

제주용암수, 공수개념 철저히 관리 필요하다

제주용암수의 국내 시판을 두고 제주도 오리온그룹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리온그룹은 원희룡 지사에게 제주용암수 국내 판매 의사를 밝혔으며 강행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허인철 오리온그룹 총괄본부장은 3일 준공식 기자회견서 “3년 전 원 지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별다른 내용이 없어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국내서 판매되지 않는 물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실공방 양상이 벌어지는 데는 무엇보다 제주도의 허술한 일처리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공자원의 용암수와 관련된 사안을 명확히 처

리하지 않고 진행한 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안일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제주도는 뒤늦게야 제주테크노파크 산하 용암해수센터를 통해 염지하수의 공급량을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공방과는 별개로 분명 두 번째 만남에서 제주용암수의 국내 판매 불가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이후 별다른 내용이 없어 사업을 진행했다”고 했습니다. 국내서 판매되지 않는 물을 세계시장에 내놓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제주도는 국내 판매를 하지 않겠다는 구두 약속을 어겼다는 입장입니다. 그동안 대화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진실공방 양상이 벌어지는 데는 무엇보다 제주도의 허술한 일처리 탓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공공자원의 용암수와 관련된 사안을 명확히 처

편집국 25시

원희룡 지사의 ‘자가당착’



송은범

정치부 차장 seb1119@halla.com

후보자였던 지난해 4월 25일 “현 전 실장은 고교 시절부터 사귄 오랜 친구”라며 “관리 혹은 도의적 책임을 묻는다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 지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오랜 친구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는 상태다.

반대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는 논란을 일으킬 만한 발언을 쏟아내며 적극적으로 자신을 어필하고 있다. 정치인은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대중에게 노출돼야 한다는 법칙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다. 다음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청와대 핵심 참모들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라질 줄 알았던 단어들인 연일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내 식구에게만 관대한 이중성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정과제인 ‘적폐 청산’의 원칙을 스스로에게도 적용할 때, 국민은 비로소 그 진정성을 믿습니다. 독선과 오만으로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는 우(愚)를 범하지 마십시오!”

현 전 실장이 다시 떠오른 이유다.

뉴스-in

서귀포시, 도와 고액채납자 출장 징수

가택 수색으로 압류할 예정

○...서귀포시가 도외에 거주하는 1000만원 이상 종합소득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고액채납자에 대해 출장 징수를 추진.

시는 경기도 일원에 거주하는 13명이 체납한 2억7900만원을 받아내기 위해 이달 9-13일 제주도 관계자와 함께 가택 수색 등에 나선 계획.

시 관계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세금 징수를 위해 영장 없이도 채납자의 가택을 수색할 수 있다”며 “현재 체납자 거주지와 가족관계, 출입국 관리기록 등을 파악중으로 가택 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전국 공무원 수백명 4·3교육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제주4·3’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을 받아 관심.

제주도 인재개발원은 올 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362명

을 대상으로 제주4·3을 비롯 해 념문화, 전기자동차, 문화·예술·정체성 등을 교육.

제주도 관계자는 “내년에도 교육 과정을 내실 있게 운영해 전국 공무원들이 제주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다짐. 송은범기자

‘조설대 경모식’ 준비 한창

○...이달 7일 제7회 조설대 경모식을 앞두고 집의계 퍼포먼스팀 25명이 오라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연습에 매진해 눈길.

퍼포먼스팀은 1905년 당시 젊은 유림 12명이 을사늑약에 항거하는 과정을 결의있게 표현한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문미숙기자

김형후 오라동장은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통용이어서 참가자들이 연습을 통해 한마음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설대 경모식은 오라동의 자랑스런 역사가 전국에 알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자랑. 고대모기자

부 고

이시준(주)한림항공 대표이사 어머니 남평문씨 이랑(향년 91세)께서 2019년 12월 4일 08시 13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5일(목)
▶ 발인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7시 30분
▶ 발인장소: 한림정남장례식장 2층
▶ 장 지: 광령리 덕수이씨 가족묘역

아 들 이영보(敍) 며느리 고영자
시 준 윤정춘
덕 원
손 자 이종철 손 부 김연순
강 일
민 규 진나연

※ 연락처 : 이시준 010-3117-4455
윤정춘 010-4628-1415

부 고

김동현(동대문 의류사업) 아버지 김해김공 석조(동서세탁소·향년 78세)께서 서귀 2019년 12월 3일 18시 47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5일(목)
▶ 발인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8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6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해인동선영

부 인 강춘숙
아 들 김동현 며느리 김우미
딸 김현주 사 위 정재훈
현 정 허 용
형 신 한동훈

※ 연락처 : 김동현 010-4055-0741
정재훈 010-2696-3875

부 고

고문철(대한민국상이군경회제주지회 사무국장) 어머니 광신모씨 명순(향년 91세)께서 서귀 2019년 12월 4일 11시 09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5일(목)
▶ 발인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9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향실
▶ 장 지: 양지공원

남 편 고학선
아 들 고문철 며느리 전정희
문 주 서지영
문 섭 우영열
문 중 오정열
딸 고문희 사 위 오재천
문 북 부영석

※ 연락처 : 고문철 010-3697-3231
고문주 010-8661-3111
고문섭 010-3699-0232
고문중 010-3693-6468
오재천 010-8662-8522
부영석 010-3693-4806

부 고

이인구(제주중학교 교사) 어머니 파평윤씨 성순(향년 90세)께서 서귀 2019년 12월 4일 12시 32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일 포: 2019년 12월 5일(목)
▶ 발인일시: 2019년 12월 6일(금) 오전 8시
▶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9분향실
▶ 장 지: 제주시 공설묘지 선영

아 들 이인구 며느리 임형신
재 칠 양연옥
재 준 문인자
딸 이복순 사 위 이항익
순 자 현상민

※ 연락처 : 이인구 010-2896-2297
임형신 010-3150-0340
이복순 010-2102-0737
이항익 010-9838-0737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남평문씨 순연(향년 89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19년 12월 5일

아 들 김 제 덕
딸 김 미 자
사 위 이 종 보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 양 강세주(1993. 02. 19생)
·최후주소 : 제주시 동광로 80, 701호(이도이동, 현원아파트빌)

상기자는 2019년 7월 22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19년 11월 28일 제주지방법원 2019노단10290 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나다.

이에 민법 제10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 제주시 동광로 80, 701호 (이도이동, 현원아파트빌)
2019년 12월 5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 시 진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